

제목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링크	https://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88215164&orderClick=JAj				
저자	노현웅 외 5인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철수와영희
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노동, 청년노동				
주요 내용	1부에서 살펴본 경기·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주야 맞교대’가 지적하는 장시간 노동은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일한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밥을 살 수 있는 돈’이 더 긴요한 ‘워킹 푸어’가 존재하는 이상 장시간 노동은 ‘강요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2부에 등장한 콜센터 노동자는 ‘감정노동’과 ‘감시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언과 괴롭힘, 때론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에 마음속부터 병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메신저 등의 전자감시 체계에 기반한 비인격적 노무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부에서 짚은 ‘초단시간 노동 현장’의 모습도 많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예외 노동자’로 취급받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유급휴가도 유급휴일도 누리지 못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4부에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은 기술 발전을 멀리서 뒤쫓고 있는 법 제도의 속제를 드러냈다. 배달대행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법은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으며,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 참고할 만한 서평 [한겨레 창간 30돌] 특별기획 노동 orz http://www.hani.co.kr/arti/SERIES/1102/home01.html ↳ 한겨레 창간 기획이므로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사로 정리되어 있음 우리 노동의 자화상을 비추다				

	http://todayboda.net/article/7707 ↳ 책 내용 전반을 개괄하는 서평
활용방안	- 르포형식과 분석글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다. 제조업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을 미세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법제도에 대한 해석, 산업별 통계,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 등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내기와 함께 보기에 적절한 책이다. - 4파트로 나뉘어져있으므로 각 파트를 읽을 때마다 카폴 등 관련 동향을 이슈토론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더욱이 4파트가 병렬적으로 이뤄져있어 신입 학회원 유출입이 잦은 3월에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다. - 한편 다양한 노동자들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법제도, 인식 개선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마저도 얕은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기에, 제도별 구체 쟁점을 살피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논의꼭지 혹은 후속기획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기타	